

완도 전북 살리기 공직자들 팔 걷었다



완도군은 15일 군 공무원들이 최근 광주송정역에서 탑승객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등 완도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 문화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지역 전북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완도군 공직자들이 나섰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월 말까지 전북 소비 촉진

위한 특별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판촉활동을 펼치고 있다. 완도군은 30만 지역별 향우회와 정부기관단체, 주요 공사·공단 등

이달말까지 특별 할인판매 행사 진행 현장 판촉활동·소비촉진 대책 마련

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대기업체 방문을 통해 전북 소비 촉진을 홍보하고 있다. 완도군은 GS리테일,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 마트, 수협 온라인 판매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22.4을 판매 했으며 지난 1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서 펼쳐진 기아가족 부모초청 효 한마당행사에서 직관행사를 열어 500kg를 현장 판매했다. 지난 12일에는 광주송정역에서 탑승객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완도군은 또 지난 14일 신우철 군수 주재로 전북 소비 촉진 확산을 위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단계 소비 촉진 2단계 전북산업 종합 진단 및 대책 마련, 3단계 지속 실행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기로 했다. 완도군이 전북 소비 촉진에 노력하는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다. 또 그동안 무재해, 폐사량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한데다 큰전북 유통이 침체되면서 유통 출하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산업은 완도군 경제의 근간이다. 전국 전북 시설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국의 75%인 1만3500에 달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북 어업인도 돕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완도군의 근간인 전북 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서 '드론' 첫 실기시험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드론 실기시험장 운영

장흥군은 지난 15일 심천공원 축구장에서 전국 응시생들이 모인 가운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첫 실기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은 지난달 장흥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드론 실기시험장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흥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다. 최근 드론이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산림감시·보호, 안전진단, 지적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 같은 수요를 예측

하여 선제적으로 실기시험장을 유치에 나섰다. 현재 전남에서는 드론 실기시험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흥군 드론 실기시험장은 장흥공설운동장과 심천공원 축구장으로 연간 상시 운영되며 5월 시험일정은 16일, 29일,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성 군수는 "실기시험장 운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및 타지역 응시자들의 방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김홍필 기자

무안군,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무료 공연 개최

무안군은 16일 남악북합주민센터와 17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무안군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와 학부모 1,500여 명을 초청해 인기 가족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공연을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는 전 세계 1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독일 유명 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동화 원작을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으로 작은 두려지 한스의 머리에 똥이 떨어

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와 학부모 초청 무료 공연
오늘 남악북합주민센터·내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지면서 똥의 주인을 찾아 소심한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

부가 후원하는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무안군이 선정되어 개최

하게 됐다. 공연은 16일 오전 10시 10분과 11시 10분 남악북합주민센터와 17일 오전 10시 30분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승달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을 매월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면서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061-450-4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 시민회관·진남문예회관 시설 보수로 임시휴관

문화사랑방 보수·냉난방시설·음향시설 교체 등



여수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이 노후 시설물 보수 관계로 임시 휴관

한다. 여수시는 공조시설 교체 등의 사유로 시민회관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진남문예회관은 내달 5일까지 휴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회관의 경우 문화사랑방 보수공사가 진행된다. 시는 내달 28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연습실로 개방할 계획이다. 진남문예회관에서는 냉난방시설·음향시설 교체, 현관·천정 보수 등 5억원 규모의 공사가 내달 30

일까지 예정돼있다. 시는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보수공사 기간에 관계없이 휴관기간을 최소화했다. 이번 보수공사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컨설팅 결과 공연장 전체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추진하게 됐다. 당시 컨설팅에서는 냉난방시설 등 공조시설과 무대기계장치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회관과 진남문예회관은 개관한 지 25~30년이 돼 간다"며 "이번 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가뭄 물 부족 피해 겪는 8개 도서 지역 급수 대책 추진

2019년부터 식수 전용 저수지 개발 예정

진도군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극심한 피해를 겪는 도서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유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등 급수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조도면 대마도 등 8개 도서에 해수담수화 시설로 상수도 공급을 해 오고 있지만 가뭄과 수원 고갈이 갈수록 심각해 해마다 급수대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마도의 경우 방사형 관정(해수담수)시설을 이용, 생활용수로 사용해 취수량 부족으로 1일 4시간의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군은 환경부와 전남도에 대마도를 식수 전용 저수지(2만5,000톤 규모) 신규 사업 대상지로 건의 총 40억원 사업비로 2019년부터 3년 등

안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조도면 대마도는 전남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에 지정되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안정적인 급수가 공급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편익이 극대화 되어 주민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사도 등 일부 도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정과 식수 전용 수원지 개발, 해저관로 시설 등을 다각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극대화하고 섬을 미래지원화 하는데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